

스리랑카 대한불교 조계종마을 준공식

කොරියා ශ්‍රී ලංකා බෞද්ධ චෝලේ ගම්මානය විවෘත කිරීමේ උත්සවය. 04.29.2004. 대한불교조계종 කොරියා ශ්‍රී ලංකා බෞද්ධ චෝලේ නිකාය.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준공

500여 주민 아낌없고 새 보급자리

“귀의불 양족존(歸依佛 兩足尊)~, 붓담 사라남 가차미(Buddham Saranam Gacchami)~”

4월 29일 스리랑카 라투나푸라 지역에서 한국과 스리랑카 삼귀의(三歸依)가 연이어 울려 퍼졌다.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준공식이 열린 것이다. 30도를 훨씬 웃도는 찌는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봉선사 회주 밑은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스님을 비롯, 2천여 한·스리랑카 불자들은 한국 불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새로운 보급자리 완공을 축하했다.

조계종 마을은 지난 해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큰 수해가 발생되자 총 2억6천만 원의 '자비의 수재성금'이 모여 조성됐다. 수해 당시 마을에 86가구 400여명이 거주했지만 산사태로 주민 56

한국 도움 아래 법당, 보건의 등 마련

유치원 아이들 새싹불자 희망 보는 듯

법장 스님 “의료진 지원 검토” 밝혀

명이 사랑하는 아픔을 겪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2시간 30분 떨어진 지역에 조성된 조계종 마을에는 현재 500여명 118가구가 살고 있다. 수해가 난 뒤 스리랑카 정부는 이재민촌 맞은편에 10만 달러를 들여 16에이커를 매입해 부지를 조성했으며, 한국 불자들의 도움으로 마을회관, 법당, 설법전, 보건의 등이 마련됐다.

준공식 식전 행사로 마을 어린이들이 스리랑카 전통 춤과 노래를 한국 방문단에 선보였다. 강렬 리듬의 타악기 소리에 맞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환영의 몸짓을 표현했다. 준공식 도중 스리랑카식 예불과 반야심경이 흘러나오자 마을 주민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을 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참석한 준공식은 하나의 작은 축제였다. 피부색은 달라도 불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든 '야단법석'이기 때문이다.

준공식에서 아스기리야 종정 우두가마 붓다라카다 스님의 축사를 대독한 부총정 일라마 아사다시 스님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펴는 것”이라며 조계종 마을 준공 의의를 압축해 표현하기도 했다.

준공식이 끝나자 한국 방문단은 조계종 마을을 둘러봤다. 뒷마당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금방 회칠을 한 시멘트 벽 사이사이로 마을 조성을 위해 흘린 땀방울들이 배어있는 듯 했다. 침대만 하나 놓여있는 보건의를 보고 몇몇은 웃음도 흘렸지만, 아이들이 모여 있는 유치원에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 중 유평피나드 씨는 한국 방문단에게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 줘 너무 기쁘다. 한국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환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또 두산씨 씨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마을 운영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마을을 둘러보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내 집이 생긴 것처럼 즐겁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또 한 주민이 마을에 병원이 없다면 어려움을 호소하자 법장 스님은 “올해 동국대 의료진이 스리랑카를 방문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좋은 집을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단이 스리랑카 전통춤의 환영을 받으며 조계종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남동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등이 새로 지은 법당을 참배하고 있다.

스리랑카 대통령·수상, 불치사 방문

29일 조계종 마을 준공식에 참석한 한국 방문단 대표단은 30일과 5월 1일 수도 콜롬보에서 스리랑카 대통령과 수상을 연이어 만나 한·스리랑카 불교 교류 활성화와 민간외교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30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최근(4월 2일) 실

시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평화적으로 치러져 축하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어머니 상’으로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찬드리카 쿠마라통 대통령은 “어머니가 수상이었던 때(1976년)에도 한국 조계종 스님들이 다니는 등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는 깊은 친선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스 불교, 민간교류 활성화 논의 참석단 佛치아사리 친견 후 종정 예방

5월 1일 한국 방문단 대표단을 만난 마힌다 라자락세 수상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 수상이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법장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상담센터를 운영해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마힌다 라자락세 수상은 “최근 2년 동안 선교사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와 가난한 지역에서 개종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

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 방문단 대표단은 5월 1일 캔디 불치사(佛齒寺)를 방문해 부처님 치아사리를 친견했다.

8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치아사리 친견 행사에 참석한 대표단은 스리랑카 아스기리야 종정 우두가마 붓다라카다 스님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종정 스님은 “사리 친견 행사 때문에 준공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원래 부처님 치아사리는 인도에서 모시고 있

었는데 내전 때문에 스리랑카로 보내졌다”며 몸속에 보관하고 있던 치아사리 보관함 열쇠를 꺼내 방문단에 보여주시기도 했다.

스리랑카 라투나푸라, 콜롬보 캔디-남동우 기자



찬드리카 쿠마라통 스리랑카 대통령과의 만남.

초대합격

미국 버클리 6th Patriarch Zen Center 분원 (서울) 六祖寺 개원법회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삼라만상이 푸르러 가고 있는 즈음에 그동안 출가하여 여러 만행을 지낸 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 한복판 종로구 가회동에 육조사를 개원하고 시정 속에서 정지나며 선을 생활 속에 전해보려는 작은 뜻을 세웠습니다.

바쁘신 중이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할애해 부디 참석하셔서 개원식을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六祖寺 현웅 합장

찾아오시는 길

● 전화: 02-766-5291
● 주소: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7-4번지

- 일 시 : 5월 23일(음력 4월 5일) 일요일
- 시 간 : 오전 11시
- 선원장 : (조계사문) 현웅(玄雄)스님
- 총 무 : 주화(周和)스님
- 도 강 : 해담 거사(른 현승)
- 원 주 : 무구 거사(마이클 키니)
- 별 좌 : 묘각심